

# 여성창업기업의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promotion of Women-Owned Business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교 수 문 숙 재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과학대학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최 자 경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Prof. : Sook-Jae, Moo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Ja Kyung, Choi

###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the groundwork for an establishment of women entrepreneur policy and the guidelines for start-up of women-owned business.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Women starts business for a financial reasons and this makes up 26 percent, which ranked the highest of respondents motive for starting up a business. The double labor - due to the practice of housework and running a business simultaneously - forms 19.6 percent of the bottleneck in operating business. In addition, the worst financial strain, 43 percent, occurred during the business preparatory period.

As the entrepreneurship is higher, they are more backed up with support in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annual net profit of business operated by the older age group is relatively greater. The firm performance is greater as she holds a higher academic degree. As the goal of annual net profit is higher that is set up before the start-up, the net gain turns out to be greater in actual operation, thus resulting in greater effects.

The study shows that when they received economic aid, the initial capital had been greatly affected. The younger age group makes up the higher percentage of

support in education and training.

After considering all the findings collectivel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firm performance is affected by the entrepreneurship, schooling, age, and the goal of the female entrepreneur.

Second, a support in education and economic does not have a direct effect on the firm performance. However, the study reveals that the entrepreneurship of those who received educational support is higher than that of those who did not.

Third, the in-depth interview reveals the facts that how they had been brought up and how the role of the famil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management of business.

## I. 서론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적, 사회적 발전과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되면서 창업이나 기업경영을 통해 경제적 독립과 자아실현을 이루려는 여성 기업가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계속 증가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이를 통해 국가 경제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사업체 수는 1987년도에 448만 개에서 1997년도 말에는 850만개로 89%가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여성기업이 전체 근로자의 26%를 고용하여 1987년 이후 209%가 증가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전체 노동자의 4명 중 1명이 여성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전체기업의 성공률이 20%인데 비해, 여성기업의 경우 75%의 높은 성공률을 갖고 있다. 여성기업의 40%가 총 매출액이 \$250,000이며, 15%는 총 매출액이 \$1,000,000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여성기업의 기여도가 무척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The Female Entrepreneur*, 1995)

OECD(1997)의 보고서에 의하면, 오늘날 여성이 기업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국가의 성숙도나 발전의 한가지 지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 여성기업(Women-owned business), 즉 여성이 창업했거나 경영하는 기업은, 남성기업보다 2배나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민간부문의 일자리의 25%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500만 여성기업에서 창출하는 직업의 수는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이 창출하는 직업의 수보다 많으며, 미국 경제에서 여성기업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과, 2010년까지 모든 사업체의 50%가 여성에 의해 소유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우리 나라에서도 여성창업가는 창업과 기업경영을 통해 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소비시장에서 틈새시장(niche market)으로 전환되고 있는 세계시장에 여성기업이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견이나 인식 때문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관한 학문적 연구 성과 역시 고조된 사회적 관심에 비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그동안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주로 기업체에 취업을 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취업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그 동안 저학력의 미혼 여성들이 주도해왔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여성들의 의식의 변화로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를 원하고 있다. 더욱이 IMF 등 사회적 불경기를 겪으면서 명예퇴직제의 도입 등의 여파로 실직자들이 늘어나자, 남편의 수입에 안주하던 전업 가정주부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혼과 사별로 인해 단독으로 가계를 꾸려가야 할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혼 수는 1980년의 결혼 건수의 5.8%에서 1998년에는 32.1%로 약 6배에 가까운 급속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9) 또

한 1995년 현재 전 여성가주주의 수는 2,147,000여 명으로 전체가주주의 16.6%에 달하는데 이들 중 15.7%는 배우자가 있으나 무능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경우이며, 56.1%는 사별, 그리고 7.1%는 이혼을 한 경우로 단독으로, 또는 친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통계청, 1997)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수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 창업과 기업경영을 통해 자신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경제적 독립과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여성기업가는 상당수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밝혔듯이 여성기업가에게는 사회적 제약이나 편견 등이 뒤따라 성공하는 확률이 남성기업가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창업을 통해 자신의 자본을 투입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이윤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매우 클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의 육성이 정책적 차원에서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성기업지원제도 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지원과 교육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기업가의 창업배경과 개인적인 특성, 어떠한 교육을 받았으며 어떠한 경제적 지원(자금지원 등)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여성창업가의 기업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기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심층 사례조사를 통해 여성기업가의 개인적 특성, 창업 배경 등을 보다 심도있게 짚어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제적 지원과 교육 등이 여성창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를 조사하고 경제적, 교육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시킴과 함께 여성창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창업(Entrepreneurship)과 기업가(Entrepreneur)

Entrepreneurship이란 용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첫째는 창업이란 의미로, 두 번째는 기업가 정신이란 의미로 쓰인다. 우선, 창업

(Entrepreneurship)이란 "새로운 조직을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은 기회를 인식하고 그 기회를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시행에 옮기는데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가치를 창출하고자하는 의도를 갖는, 위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의 과정이다.(Brush, 1997) 이는 사업을 기초부터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기업가의 능력을 갖춘 개인이나 집단이 사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절한 사업기회에 자본, 인원, 설비, 원자재 등 경영지원을 확보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국제소호연합회(Global Networks), 1999) 결국 이를 종합하면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판매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이다.

Entrepreneurship은 두 번째 의미인 '기업가 정신'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는 창업이 기업가의 특수한 조건, 자질, 능력, 성향, 동기 등의 복합적인 결정체이기 때문이다.

기업가 정신은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대하여 가치있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과정, 또는 사업의 기회를 획득하고 제약된 경영자원을 가지고 사업을 일으키려는 창업가의 행동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Entrepreneurship의 특성을 크게 창의성과 혁신, 자원모집과 경제조직의 창설,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 하에서의 수익 가능성 등으로 보고,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을 고려하여, Entrepreneurship이란 위험하고 모호한 상황에서 혁신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라고 본다.

'기업가(Entrepreneur)'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하는 사람으로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업적인 기업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기업가의 의미가 모호하여,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의 통일된 정의가 없다. 그러나 기업가(Entrepreneur)라는 용어는, 혁신성, 창조성, 진취성을 겸비하고 있으며 모험적이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

OECD(1997)에서는 기업가를 “기업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회사를 직접 경영하며 재정적 위험감수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가의 특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McClelland(1967)는 성취 욕구(Need for achievement)를 기업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업가는 의사결정시 개인적 책임감을 갖고 있으며, 항상 자신의 노력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한다. 기업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성으로는 내적인 통제성향(Internal Locus of Control)을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속성을 말한다. 기업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세 번째 심리적 특성으로는 높은 위험성향(High Risk-taking propensity)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기업가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을 다른 일반인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희석하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Budner는 모호함에 대한 관용(Tolerance for ambiguity)이란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모호한 상황을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나가려는 기업가의 특성이라고 정의하였다.

사회/문화적 접근법에 있어서 미시적인 측면에서 기업가적 특성을 배양하는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함을 나타내는 많은 연구들이 존재한다. Shapero & Sokol(1982)는 가족의 역할 중에서 특히 부모님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기업가적 행동의 믿음과 욕구를 배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Gasse(1985)는 부모님 중 한 분, 특히 아버지가 사업을 하실 경우 그의 자식은 기업가가 되고자 하는 높은 동기부여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의 포춘지에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명을 선정(경력, 직책, 보수 등을 종합평가)하였는데 여성기업가들 역시 자신들의 성공비결에 대해 모전여전을 제시하였다. Jacowitz & Vinder(1982)의 연구에 의하면, 기업가의 약 72%는 부모님 중 한 사람이 기업가임을 밝혔으며, Litvak & Maule(1976, 1980); Scanlan(1980); Kieruff(1979) 등의 연구에서도 같은 연구에서 50%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

였다. Petrof(1980), Kieruff(1979)의 연구에서는 자식들 중 첫째가 기업가가 되는 현상에 대한 상관관계 조사를 해본 결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다.

## 2. 여성기업과 여성기업가

미국정부는 여성이 경영하고 있는 기업을 여성경영기업(Women-operated business, Women-led firm)이란 용어 대신 여성소유기업(Women-owned business)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조달계획(procurement program)상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최소한 5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 및 통제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여성기업이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 피고용인을 갖고 있는 자영업자의 범주에 한정할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처럼 여성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을 광의의 개념으로 피고용인을 가진 고용주,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노동자를 가진 자영업자 모두 여성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여성기업가(Female Entrepreneur)란 가계와 독립된 계산단위를 갖고 있으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하여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상시종업원을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여사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여성기업의 경우, 종업원이 5인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기업가’를 자신 이외의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혼자 기업을 하거나 관계없이 여성자영업자로 파악하고, 가계와 독립된 계산단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체가 있는 여사장이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이러한 여성기업가의 특성은 최근에 와서야 연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몇몇 연구들을 살펴보면, Buttner & Rosen(1989); Chrisman, DeCastro & Herron(1990)은, 여성기업가와 남성기업가 사이의 경험이나 욕구 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Sexton & Bowman-Upton(1990)의 경우 여성창업가와 남성창업가 사이의 특성, 경험, 또는 욕구 면에서 차이를 보

이기도 한다고 하여, 아직 특정 이론이나 특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태이다. '미국 경영협회(AMA : American Management Association)'의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기업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지원해주는 가족 가까이 에서 시작한다.

둘째, 사업경영 또는 전문직에 있으면서 원조해주는 남편과 결혼했다.

셋째, 인생에 있어 일찍부터 강력한 사업가적 성향을 보였다.

넷째, 고학력인 경향이 있다.

다섯째, 어려운 업무에 탁월한 역량을 보이며 그녀의 기업에 헌신적이다.

여섯째, 그녀의 사업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일곱째, 그녀의 삶의 다양한 면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있다(가족의 역할포함)

여덟째, 그녀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상황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포춘지가 경력, 직책, 보수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인 50명을 선정한 것에 따르면, 이들 여성 기업가들의 특성은,

첫째, 대부분이 40대 초반으로 해마다 연소화 추세이다.

둘째, 50인중 절반 이상이 정보통신 및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이다.

셋째, 최연소자는 36세로 세계최대 인터넷 업체의 전략책임자이다.

넷째, 자신들의 성공비결에 대해 어머니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하였다.

여성기업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부채비율이 낮고 경영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적인 따뜻함으로 종업원과도 친밀한 유대감을 유지해 노사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희박하며, IMF 위기 중에도 여성기업의 부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기업을 착실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성기업의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사업체 수는 '98년 현재 전체사업자의 33.5%이며, 여성기업이 전체근로자의 37.4%를 고용하는 등 경제적 비중이 매우 높다.

전체 중소기업에 비해 여성사업체의 규모가 매우 영세하다. 여성사업체의 95.7%가 종업원 5인 미만의

(단위 : 천개, 천명)

구 분	1 - 4인	5 - 49인	50 - 299인	300인 이상
전체기업	87.5	11.6	0.8	0.1
여성기업	95.7	4.2	0.1	0.0

출처: 중소기업청 '여성창업지원제도'

(단위 : %)

구 분	전체사업자	여성사업자	여성비율(%)
사업체 수	2,786	933	33.5
근로자 수	12,417	4,645	37.4

출처: 중소기업청 '여성창업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며 여성사업체의 99.9%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정부 지원기관 및 제도

#### 1) 창업자금 지원제도

##### (1) 소상공인창업지원자금

상시종업원이 10인 이하이며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상시종업원이 5인 이하이며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및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에 해당하는 소상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 이전, 확장, 업종을 변경, 사업장 시설을 개선 또는 설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에 종사하거나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자 또는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자이다. 지원자금의 규모는 2,000억원으로 대출금리는 연리 8.25%, 지원한도는 5천만원 이내, 상환기간은 4년(거치기간 1년 포함)이다. 상환방법은 월별 균등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창업 또는 경영상담을 신청한 후 상담결과 자금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대출취급은행에 추천을 한다. 그

후 취급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진다. 이는 2,000억원의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되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창업 및 경영상담 등을 통해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필요시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여 종합평점이 55점 이상인 경우에 추천을 해준다. 여성창업자 및 여성소상공인에게 가점 5점을 부여한다. 취급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 또는 채권보전 절차를 거쳐 대출이 이루어지며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자금의 유용 또는 불법 사용 등의 사실이 있거나 부적격 지원대상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대출자금 조기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참가업체별 총토자비(공동부문 분담금 포함) 중에서 일정비율의 자기자금 부담능력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기적립된 예적금, 주식·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과 매각 또는 담보제공 가능한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이 그것이다.

#### (2) 생계형창업 특별신용보증

소규모 사업자가 창업을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소요자금의 1억원 이내에서 특별보증을 지원하여 창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주점업·사치향락업 등과 같이 국민경제생활을 저해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 등 생계형 창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자금의 용도는 사업장 취득 및 임차 자금 등의 창업자금과 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구입비용 등 일체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창업초기의 운전자금으로 사용하게 된다.

#### (3)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지원

이 제도는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여 가계안정과 자활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부지원예산으로 20억을 투자하여 저소득 여성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자,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자, 배우자가 심신(정신)장애,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신하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경우,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등 기타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들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이 지원을 받게되면, 생계형 소규모 자본 창업시 점포임차금 2천만원을 융자해주고, 융자기간은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2년이 연장 가능하다. 또한 대출이자는 연리 4%로 매우 낮으며 이자는 분기납부가 가능하다. 여기서 저소득이라 함은 가구당 월소득 92만원, 재산규모가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하여 여성가장이라 함은 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한다.

한국여성경제인 협회가 건물주와 임차계약, 저소득 여성과 지원약정을 체결하고 분기별 이자납부를 확인,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임차계약은 협회 명의로 체결 또는 전세권에 근저당을 설정, 전세등기 등으로 채권을 확보한다.

#### (4) 실직여성가장 점포임차자금 지원

보증 및 담보여력이 없는 실직여성가장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가장이 희망하는 점포를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임차하여 보증·담보 없이 대여해준다. 이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 후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 둘째, 배우자가 심신장애·사고·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 여성가장, 마지막으로, 배우자가 궁박한 생활 등의 사유로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회피·기피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실직여성가장이 그것이다. 단, 근로복지공단의 실업자대부금 중 생업·영업자금을 대부분 받은 자는 제외한다.

지원내용은 점포임차 전세금을 5천만원 이내(인테리어 비용, 권리금, 물품대 등은 제외)에서 지원해주며 지원기간은 1년이나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부이자율은 연리 7.5%로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 2) 정부의 여성기업 지원시책

### (1) 여성기업지원인프라 구축

정부의 여성기업지원에 대한 시책은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더 활발히 논의되었으나, '99. 2. 5. 에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리고 당해 6월에 시행함으로써 본격화되었다. 여성기업지원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이 보유한 능력이 경제영역에서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100

만 여성기업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 육성

- ▶ 여성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여건 조성
- ▶ 여성의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 ▶ 여성기업의 경영안정 지원 및 경쟁력 제고

- 여성기업의 정의(제2조) :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 시정(제4조) : 중기청장이 시정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하여야 함
-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 수립·추진(제5조)
-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설치·운영(제6조)
-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생산제품 우선 구매(제9조)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근거 규정(제13조)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제15조)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99년 7월)하고,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위원장 : 중기청) 설치 및 여성기업 디렉토리 발간 및 여성기업실태조사 실시하였다. 인터넷 IP구축사업을 시작하여 여성기업에게 각종정보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기업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하였다.

(2) 여성창업지원사업

첫째로는,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운영으로 이는 예비·신규창업자에게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경영, 기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여성의 창업성공을 제고하고 창업을 촉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다. 예비여성창업자 및 창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창업자들에게 보육공간을 제공하거나 경영상담 등을 통해서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개별 사업장, 회의실을 제공하고 세무·회계 등의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해주기도 한다. 또한 창업 사랑방을 운영하여 순회창업 상담 장소로 활용을 하고 창업정보 자료실, 창업동호인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로 이용하도록 한다. 창업 전문가,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지역 내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또 수시로 창업상담을 제공한다.

이러한 개념의 여성창업보육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 창원 등 7개 지역에 시범설치하고 있다.

둘째, 여성창업강좌의 개설로 여성창업자를 위해 전문창업강좌를 개설하여 창업절차·요령, 업종별 창업기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기법 및 컴퓨터 강좌 등을 개설하여 여성의 창업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창업강좌의 내용으로는 창업박람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소호(SOHO), 프렌차이즈, 벤처, 소자본 창업 등에 대한 창업요령, 입지, 마케팅, 창업자금 등을 강의하고 창업컨설팅 및 창업관련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일반 창업강좌에서는 창업절차, 입지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마케팅, 자금관리, 각종 인허가 및 세무 등에 관련된 창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창업기법 등을 알려주고, 전문창업강좌에서는 벤처 창업, 인터넷 창업, 소자본 창업, 무역업, 여대생 창업 등을 창업절차 등과 함께 사례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컴퓨터 관련 교육도 실시하는데 윈도우, 한글, 인터넷 등의 기초과정에서 네트워크, 홈페이지 제작 등의 웹 관련한 정보화 교육을 함께 실시한다.

셋째로, 여성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 협회를 통하여 주부, 여대생 등을 대상으로 지식·정보산업, 제조업, 유통·서비스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2000년 9월 ~ 10월에 개최하였다. 이는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성 창업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넷째, 여성경제인 1인1후견인 제도 실시한다. 여성경제인 1인1후견인 제도란 창업한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여성창업자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원 또는 창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여성경제인으로서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간에 자매결연을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여성창업자와 이미 자리를 잡은 여성경제인을 연결시켜 경영기법 등에 관련된 자문을 제공해주는 제도이다.

다섯째,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을 지원한다.

(3) 여성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

우선, 경영·정보화 연수사업을 실시하여 여성경제인의 능력제고를 위해 최근 경제동향, 경영기법 및 정보화 관련 연수 등을 실시하여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수내용은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는 경영연수로 경영혁신, 재무·회계, 마케팅, 인력관리 등을 교육하며, 두 번째인 정보화 연수에서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등을, 마지막으로 업종별 연수에서는 유통, 디자인, 개인 서비스 업 등에 관한 교육을 한다.

또한 경영컨설팅 지원을 실시한다. 여성기업의 경영능력향상, 경영개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진단을 해주고, 컨설팅을 해주며 경영지도 비용을 지원한다. 경영진단·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경영진단의 경우, 5일 이내, 1백만원 이내에서 전액을 지원하며, 경영지도의 경우, 20일 이내, 400만원이내에서 소요비용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그리고, 해외유명규격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기술개발 및 해외판로확대를 위해 해외유명규격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인증 마크가 없어 수출에 애로를 겪는 여성기업들을 위해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당 1천만원 이내에서 70%까지 지원, 업체 당 3건 이내 지원을 해준다.

여성기업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 및 등록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기술력 및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외국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을 1999. 1. 1 부터 출원하여 1999.11. 1 ~ 2000.11.30 동안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출원·등록비용의 50% 이내에서 1건당 3백만원까지, 동일 기업 당 3건 이내 지원을 해준다. 또한,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패션산업의 육성과 디자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 액세서리, 신변장신구 등의 패션쇼, 컬렉션 페어, 패션 세미나 등 종합패

션대전 개최를 지원하였다. 패션쇼를 11회(2000. 4.18 ~ 4.21) 개최하여 13,000명 참관하였으며, 유명패션 디자이너를 20인 선정하여 우수상품전을 개최하였다.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에서는 참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개최비용의 50%를 지원하였다.

(4) 여성기업 판로지원

첫째로, 여성기업우수상품 전시회 및 박람회를 개최한다. 여성기업이 생산한 우수상품 전시회를 통해 여성기업의 판로확대 및 여성기업제품에 대한 일반의 인식 제고시키고, 여성기업의 우수상품을 발굴,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여성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백화점이나 쇼룸센터 등을 활용하여 여성기업이 생산한 물품을 전시, 판매, 홍보하여 국내 여성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고 일반 여성의 창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창업상담 및 세미나를 운영하였다.

둘째, 해외시장개척단 및 연수단 파견을 실시하였다.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을 지원하고 선진경영기법 등 습득을 통한 여성경제인의 경영 능력 향상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조사를 하고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희망 여성기업의 신규거래선 발굴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수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 해외투자유치, 현지시장개척 활동 등을 하였다. 이에 해외연수단은 일본, 미국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은 유럽, 일본으로 파견하였다.

셋째, 여성기업생산제품 공공구매를 한다. 2000년부터 조달청, 한국통신 등 69개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생산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기업의 정부조달시장진입을 확대한다. 2000년도 구매예정액은 총 7,661억원으로 구매실적은 2000년 4월말 현재 4,887억원(63.8%)에 달했다.

###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실태를 파악하고, 여성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며 여성창업에 대한 경제적, 교육적 지원이 창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구성하였다. 첫째, 여성의 창업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여성창업



가의 개인적 특성은 어떠한가, 그것이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여성창업에 대한 교육적, 경제적 지원이 여성창업가의 기업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를 위해서 지역별, 업종별 여성기업 현황, 출신지역, 창업동기, 초기투자자금, 애로사항, 지원기관 등을 알아보고 여성기업의 총 매출액, 순이익 등을 조사하였다.

설문지법으로 진행된 연구에서, 그 대상은 업종과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창업한지 6개월 이상 지난 여성기업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표집 방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주최한 1999년도와 2000년도 여성창업박람회에 참가했던 업체들, 창업관련 사이트에 자신의 업체를 PR한 여성기업가들에게 전화 또는 E-mail을 통해 1차 접촉을 하였으며, 설문조사에 응할 경우, 연구 대상 본인의 편의에 따라 Fax, E-mail,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하였다.

둘째, 여성 사이버 비즈니스 클럽의 회원들 중 여성 창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직접 돌리고 회수하였다.

셋째, 평소 주변에서 알고 있던 여성창업자들과 여성창업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조사를 의뢰하는 비확률적 편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다.

넷째, 업체를 방문하여 취지를 설명하고 설문지 작성을 부탁하였다.

### 1. 질문지의 측정변인

#### 1) 개인적 변인

개인적 변인은 여성기업자의 창업 당시의 연령, 학력, 전공, 출신지역, 창업당시 혼인의 형태, 결혼지속년수, 자녀수를 포함시켰다. 교육수준 측정은 인적자본의 측정으로 학연 등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고려하였고, Heck et al.(1993)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총소득 대 기업소득의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게 나타났으며, Walker et al.(1993)은 6세 미만의 자녀는 여성기업가의 순 사업소득에 부적 영향, 남성기업가의 순 사업소득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 2) 창업배경 및 과정에 관한 변인

창업 배경에 관한 변인에서는 창업동기, 창업 전 취업경험, 초기 투자 자금의 액수, 초기 투자 자금의 출처, 창업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창업지속년수, 여성창업가로서의 애로사항,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시기, 필요한 교육분야, 종업원 수, 교육 프로그램에의 참여여부, 업종, 창업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 3) 기업성과에 관한 변인

여성창업가의 '기업성과'는 창업기업의 규모 (종업원 수, 연간 순 매출액), 초기 투자자금, 그리고 응답자의 주관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근거로 하여 측정하도록 한다. Rowe 외(1993), Heck 외(1993)의 종업원 수는 기업소득에 정적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Heck (1998)의 연구에서는 기업체의 규모가 기업체의 총수입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연간 순이익, 창업 전 기대했던 목표 연간 순이익, 그리고 창업 전 기대했던 사업적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응답자에게 백분율로 대답하게 하였다. 목표 순이익 대비 실제 순이익을 측정하여 창업의 객관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는 업종별, 형태별로 순이익에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창업 전 기대했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비록 주관적인 판단이지만, 응답자가 자신의 업종과 사업을 가장 잘 아는 것을 고려할 때 종합적 판단이라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 4) 창업가의 개인적 성향에 관한 변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Baumbach & Lawyer에 의하여 제시된 21개의 문항 중 20개 문항을 예비 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20개의 문항은 '성취욕', '독립성', '리더쉽', '자신감' 등의 기업가의 성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를 측정하는 방법은 20개의 문항을 모두 답한 후에 창업을 희망하는 검사대상자의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으면 1점,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일치하면 2점, 항상 일치하면 3점을 준다. 평가방법은 총점이 60점이면 완벽, 49점부터 59점 사이이면 우수, 39점부터 48점이면 보통, 38점 미만이면 열등으로 판정을 내린

다. 물론, 높은 점수는 성공적인 기업주가 될 적성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88$ 로 나타났다.

2. 자료분석 방법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개인적 특성, 창업관련 실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각 문항에 대한 빈도 분석과 백분율, 평균 을 산출하였다. 또한 여성 창업에 대한 개인적 성향,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교육적 지원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hi^2$ 검정, T-test, 분산분석(ANOVA), OLS분석 등의 통계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창업 당시의 연령은 22세부터 52세까지 분포하며, 20대가 30%, 30대가 37% 이었으며, 40대가 23%, 50대가 5%로 나타났다. 평균연령은 약 35.3세이며, 30대 집단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 수준을 살펴보면 중졸 이하가 2%, 고졸이 36%, 대졸이 51%, 대학원 졸업 이상이 11%이었다. 평균 교육년수는 14.6년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전공을 살펴보면, 이공계가 11%, 상경계가 28%, 인문사회계가 34%, 예체능계가 16%, 그리고 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00)

범주형 변수		빈 도	백분율(%)
창업당시 연령	20대	30	30 %
	30대	37	37 %
	40대	28	28 %
	50대	5	5 %
여성창업자의 학력	중졸 이하	2	2 %
	고졸	36	36 %
	대졸	51	51 %
	대학원 이상	11	11 %
전 공	이공계	11	11 %
	상경계	28	28 %
	인문사회계	34	34 %
	예체능계	16	16 %
	기타	11	11 %
출신지역	서울	53	53 %
	지방광역시	27	27 %
	지방 중소도시	13	13 %
	읍, 면, 리	7	7 %
창업 전 취업여부	직장생활 경험 유	76	76 %
	직장생활 경험 무	24	24 %
창업당시 결혼여부	결 혼	61	61 %
	이 혼	8	8 %
	사 별	5	5 %
	미 혼	26	26 %

타가 11%로 인문사회계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상경계도 높은 수준이다.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53%, 지방 광역시가 27%, 지방 중소도시가 13%, 그리고 읍, 면, 리 출신이 7%로 대도시 출신자가 월등히 많은 80%를 차지하였다.

〈표 2-1〉을 보면, 여성창업의 동기로는 단연 경제적인 이유가 26%(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

어, 자아실현이 15%(26명), 스스로 독립하고자 12.7%(22명) 그 다음으로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가 11.6%(20명)이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가 10.4(18명),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9.2%(16명), 기존 직장에 대한 환멸이 7.5%(13명), 동업의 권유가 5.2%(9명), 그리고 가족기업의 전수가 2.3%(4명)로 가장 낮았다. '워킹 위민'측의 케일 코플로비츠는 "여

〈표 2-1〉 조사대상자의 창업 배경 및 과정에 관한 변인

변 수		빈 도	백분율(%)
창업동기 (복수응답 N=173)	경제력	45	26 %
	자아실현	26	15 %
	스스로 독립하고자	22	12.7 %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20	11.6 %
	새로운 아이디어의 사업화	18	10.4 %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	16	9.2 %
	기존직장에 대한 환멸	13	7.5 %
	동업의 권유	9	5.2 %
	가족기업의 전수	4	2.3 %
여성창업가의 창업시 애로사항 (복수응답 N=194)	가사노동/사업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	38	19.6 %
	자금조달	36	18.6 %
	인력의 확보	17	8.8 %
	남성위주의 접대문화	16	8.2 %
	판매처확보	16	8.2 %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	15	7.7 %
	성차별	11	5.7 %
	제품개발	10	5.2 %
	시설 및 설비 확보	8	4.2 %
	사업아이디어 발굴	7	3.6 %
초기투자 자금출처 (복수응답 N=173)	저축 등의 개인자본	68	39.1 %
	가족(친지)	44	25.3 %
	은행	23	13.2 %
	집등의 담보	16	9.2 %
	중소기업지원기관	10	5.7 %
	개인 엔젤	9	5.2 %
	벤처캐피탈	4	2.3 %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 (복수응답 N=173)	창업준비기간	43	43 %
	창업 후 1년 미만	26	26 %
	창업 후 1년이상 2년미만	11	11 %
	창업 후 2년이상 3년미만	4	4 %
	창업 후 3년이상 5년미만	5	5 %
	창업 후 5년 이상 없다	8 3	8 % 3 %

성 기업가 중에는 상속으로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수성가 여성 기업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창업가들이 예전에는 가족기업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지금은 상속이 아닌 자신의 힘으로 창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여성창업자가 창업할 때 겪는 애로사항에 관한 조사는 남성중심의 사회구조로 인한 여성의 활동제약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가사와 사업을 겸하는 이중 역할과 접대관습에 따른 불편이 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2000개의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가사병행애로가 21.1%, 정보획득불편이 20.3%, 그리고 거래처 접대애로가 18.4% 등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회관습상 아직도 보이지 않는 차별적 관행이 상존하고 있어 사회일반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여성경제인에 대한 편향된 시각, 부정적인 인식, 대출시 남편의 연대보증 요구 등이 그런 예이다. 또한 소규모 서비스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배우자와 사별로 인한 유산창업을 하거나 이혼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창업을 한 경우도 많아서 기업경영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많다. 경영교육 접근기회 부족 등에 따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관리를 겪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가사와 자녀문제에 의해 숙박을 하는 장기교육에 참여가 곤란한 점도 여성창업가만의 특수한 애로사항으로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여성창업자의 창업시 애로사항으로 가사노동과 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38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금조달이 18.6%(36명)으로 가사노동과 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과 자금조달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인력의 확보가 8.8%(17명), 남성위주의 접대문화와 판매처 확보가 각각 8.2%(16명)씩이다. 부정적인 사회의 인식(7.7%)과 성차별(5.7%), 등이 제품개발(3.6%), 시설 및 설비 확보(4.2%), 사업 아이디어 발굴(5.2%) 등, 정작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보다 더 많은 응답이 나왔다는 것은 개선이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초기투자자금의 경우, 이를 살펴보면, 최소 30만

원부터, 최대 3억까지 매우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업종, 형태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만원 이상 1억 이하에 50% 가량 분포되어있어 대부분의 여성창업가들이 사업을 소규모로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창업 후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조사 대상자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43%가 창업 준비기간에 가장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하였으며, 창업 후 1년 미만이 26%, 1년 이상 2년 미만이 11%, 창업 후 3년 이상이 5년 미만이 5%, 5년 이상이 8%의 순이었다. 반면 3%는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창업준비기간에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투자자금의 출처는 저축 등의 개인자본이 39.1%(68명)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친지)가 25.3%(44명)이었고,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13.2%(23명), 집 등의 담보가 9.2%(16명), 그리고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는 5.7%(10명)에 불과했다. 또한 벤처캐피탈이나 개인엔젬에게 지원을 받은 경우도 각각 2.3%(4명), 5.2%(9명)로 거의 없는 편이었다. 창업을 할 때 자신의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이 탄탄한 사업체의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앞에서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 창업준비기간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여성창업자에게 사업초기에 경제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다.

〈표 2-2〉에서는 창업 전 사업을 하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 또는 기관이 어디였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주변 경험자'로 39%가 이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의 도움을 택한 사람이 40.5%로 그 뒤를 이었는데, 이는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은 자금이 드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급 가족노동 종사자의 비율이 매우 높음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세 번째로는 사업동료나 동업자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기대한 경우가 17%, 정부관련지원기관이 3%, 금

〈표 2-2〉 조사대상자의 창업 배경 및 과정에 관한 변인

	변 수	빈 도	백분율(%)
창업 전 가장 많은 도움을 예상했던 기관 (N=100)	가족, 친지	36	36 %
	주변 경험자	39	39 %
	동업자(사업동료)	17	17 %
	이전 근무기업	1	1 %
	정부관련 지원기관(중소기업청 등)	3	3 %
	금융기관	3	3 %
	기타	1	1 %
창업 후 도움을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기관 (N=100)	가족, 친지	46	46 %
	주변 경험자	31	31 %
	동업자(사업동료)	16	16 %
	이전 근무기업	1	1 %
	정부관련 지원기관(중소기업청 등)	1	1 %
	금융기관	3	3 %
	기타	2	2 %
필요한 교육기관 (복수응답 N=171)	기업에 관련된 법률	31	18.1 %
	인사 관리 기업	10	5.8 %
	마케팅	45	26.3 %
	원가 및 재무관리	16	9.4 %
	현장 연수	12	7 %
	정부지원제도	9	5.3 %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27	15.8 %
	창업성공사례	11	6.4 %
	창업과 기업가 정신	5	2.9 %
	창업 절차	5	2.9 %
교육의 도움 분야 (N=37)	경영혁신과 업종전환	5	13.5 %
	자금조달	0	0 %
	정보교류	15	40.5 %
	인맥형성(네트워크 구축)	9	24.3 %
	기업경영의 개선책	8	21.6 %

금융기관이 3%, 그리고 기타가 1%의 순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창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가족, 친지라는 응답이 46%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반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창업 전에 36%만이 가족의 도움을 기대했었는데, 10%의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두 번째가 주변경험자로 31%이었고, 동업자(사업동료)가 16%, 금융기관이 3%로 예상보다 약간 증가하였다. 창업 후 가족, 친지의 도움의 형태는 경제적, 육체적, 심리적인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여성창업가들에게 가족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성기업가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 마케팅이 26.3%(45명)로 가장 높았으며, 세무 등 기업과 관련된 법률이 18.1%(31명),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 15.8%(27명)의 순이었다. 46%의 여성기업가들이 이러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72.3%의 여성기업가들이 이러한 교육이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은 부분은 정보 제공 및 교류 부분으로 여성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으로 꼽아졌던 정보획득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 방안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인맥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이 두 번

〈표 3-1〉 경제적 지원여부에 따른 각 변인들

(N=100)

		경제적 지원 받음(41)		경제적 지원 받지 않았음(59)		$\chi^2$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 령	20 대	12	29.3	18	30.5	1.268
	30 대	15	36.6	22	37.3	
	40 대	13	31.7	15	25.4	
	50 대	1	2.4	4	6.8	
창업가의 성향	완 벽	4	9.8	4	6.8	.508
	우 수	19	46.3	26	44.1	
	보 통	16	29.0	25	42.4	
	열 등	2	4.9	4	6.8	
학 령	고졸이하	17	41.5	21	35.6	9.416*
	대 졸	16	39.0	35	59.3	
	대학원졸이상	8	19.5	3	5.1	
		경제적 지원 받음(41)		경제적 지원 받지 않았음(59)		t 값
		Mean	S.D.	Mean	S.D.	
연 령		35.56	7.68	35.14	8.47	.257
학 령		14.51	2.87	14.68	2.05	-.317
만족도		2.73	.92	2.58	.70	.958
성 향		48.76	7.73	48.17	6.68	.405
창업지속년수		5.02	4.82	4.47	4.67	.572
연간 순이익		6173	5040	12631	37890	-1.293
초기투자자금		7378	6783	4666	5245	2.253*

\* P&lt;.05, \*\* P&lt;.01, \*\*\* P&lt;.001

째로 높아 24.3%를 차지하였다. 여성기업가들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네트워크 부분을 해소해주는 부분이다. 또한 교육에 참여한 이들 중 87.2%가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실제로 도움이 기업경영의 개선책을 제시해주거나 경영혁신, 정보교류, 네트워크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지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는 여부는 학력과 관련이 있으며 초기투자자금 역시 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창업에 있어서 3대 요소 중 하나인 초기투자자금은 창업성과와도 이어지는 매우 중요한 변인이다.

〈표 3-2〉에서는 교육적 지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의 여부는 연령에 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에 대한 열의와 접할 기회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교육적 지원을

받은 경우일수록 창업가의 성향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를 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간순이익이 더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성고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창업 전에 목표한 연간순이익이 높을수록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더 큰 연간순이익을 내어 기업성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창업가의 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성고가 더 좋았던 것은 아니며, 초기투자자금이 많을수록,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창업기업의 성과가 큰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2〉 교육적 지원에 따른 각 변인들

(N=100)

		교육적 지원 받음(35)		교육적 지원 받지 않았음(55)		χ <sup>2</sup>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연 령	20 대	20	44.4	10	18.2	11.288**
	30 대	3	28.9	24	43.6	
	40 대	12	26.7	16	29.1	
	50 대	-	-	5	9.1	
창업가의 성향	완 벽	5	11.1	3	5.5	6.598
	우 수	14	31.1	31	56.4	
	보 통	23	51.1	18	32.7	
	열 등	3	6.7	3	5.5	
학 령	고졸이하	13	28.9	25	45.4	7.524
	대 졸	24	53.3	27	49.1	
	대학원졸이상	8	17.8	3	5.5	
		교육적 지원 받음(35)		교육적 지원 받지 않았음(55)		t 값
		Mean	S.D.	Mean	S.D.	
연 령		32.22	7.39	37.02	8.34	-2.341*
학 령		15.07	2.54	14.24	2.25	1.730
만족도		2.78	.74	2.53	.84	1.573
창업가의 성향		50.24	7.61	46.91	6.33	2.350*
창업지속년수		5.40	5.20	4.13	4.24	1.321
연간 순이익		10344	29436	9687	29550	.111
초기투자자금		5908	6255	5671	5918	.194

\* P<.05, \*\* P<.01, \*\*\* P<.001

〈표 4〉 각 변인들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간순이익으로 측정된 기업성과	
	B	β
연 령	.642.514	.178*
학 령	2179.078	.189*
창업가의 성향	5.358	.001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	-3855.422	-.105
취업경험여부	-4961.448	-.073
창업전 기대한 목표연간순이익	.851	.630***
초기투자자금	-.405	-.083
F	10.006	
R <sup>2</sup>	.432	
상수항	-22904.272	

\* P<.05, \*\* P<.01, \*\*\* P<.001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창업기업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개인적 특성과 경제적, 교육적 지원제도가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성창업에 관한 실태분석과 여성창업지원제도 관련변수를 탐색해 봄으로써 여성창업 활성화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었다. 여성창업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미비하였으며, 여성창업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창업자의 범위를 자신 이외의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혼자 기업을 하거나 관계없이 여성자영업자로 파악하고, 가계와 독립된 계산단위를 갖고 있으며, 자신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체가 있는 여사장이라고 하고, 창업자의 창업 동기와 배경, 초기투자자금의 출처, 창업관련 지식의 습득과 경제적, 교육적 지원, 여성창업가로서 겪게 되는 애로사항, 창업자의 성향 등을 살펴보았다. 창업의 과정을 좀 더 면밀히 알아보기 위해서 기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여성기업가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방법으로 빈도, 백분율, 평균,  $\chi^2$ 검정, T-test, OLS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총 100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기업실태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응답을 토대로, 여성창업의 동기로는 경제적인 이유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기업의 전수로 인한 창업이 2.3%로 가장 낮았다. 여성창업자가 사업체를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가사/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이 19.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사/사업의 병행으로 인한 이중노동의 경우, 이는 여성창업자 뿐만 아니라, 여성취업자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문제로 사회적인 지원이 시급한 문제이기도 한다. 자금사정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로는 창업준비기간이 43%로 매우 높은 응답율을 보였는데, 여기서 여성창업

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경제적 지원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초기투자자금의 출처 역시 개인자본이 39.1%로 가장 높았으나, 이 역시 창업준비기간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지원의 미비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초기투자자금에 큰 영향을 주었다.

셋째, 교육적 지원을 받은 여성창업자들의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에 그 비율이 더 높았는데, 이는 교육의 기회가 연령이 낮을수록 더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가의 개인적 성향이 더 기업가 정신이 높을 경우, 교육적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더 적극적인 성향을 지닌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더 많이 기회를 활용하고, 개설된 것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넷째,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간순이익이 더 증가하였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성고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창업 전에 목표한 연간순이익이 높을수록 실제로 창업을 해서 사업을 운영하였을 때 더 큰 연간순이익을 내어 기업성고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여성창업가의 개인적 성향이 기업의 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적 지원과 경제적인 지원이 간접적으로는 기업성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는 있지만, 5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여성기업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직접적인 효과는 예상외로 미미하였다. 비록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하여 성공가능성이 큰 여성기업에게 지원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정부에서는 여성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가 아닌, 보다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으로 여성기업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위한 규제완화와 세금우대정책 그리고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의 보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각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여성들 간에 파트너쉽이나 온·오프라인의 네트워킹 구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성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전문기관을 구심점으로 여성기업들이 한데 뭉쳐 성공가능성 있는 여성기업에 투자



하고 이로서 얻은 이윤을 재투자해 여성기업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전문직 여성의 증가와 여성의 사회활동 보편화로 경제영역에 있어서 여성의 잠재능력을 활용해야 할 때가 왔다. 여성의 특성과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경제주체로 육성해야 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의 확대, 상품의 다양화, 패션화, 섬세화 등으로 사회구조가 여성에 우호적인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큰 힘이다. 여성기업들은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능력 등의 유리한 점들도 많이 갖고 있다. 21세기 지식경쟁 시대를 맞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작년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를 설립했다. 그리고 100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여성의 창업촉진과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창업보육센터의 설치와 창업강좌 개최 등을 실시해 여성창업을 적극 돕고 있으며 69개 공공기관이 매년 일정비율 이상의 물품을 여성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해 준다는 식의 소극적 방법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마케팅 창구를 열어준다든지, 체계적으로 기술 습득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는 여성의 섬세한 감각과 업무수행 능력, 독특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시대이다. 특히 인터넷분야에서 여성들은 소프트웨어 콘텐츠는 물론 디자인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교육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사장이 여자인지 나이가 몇인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콘텐츠의 질과 품격, 그리고 신용으로 평가를 받는다. 그 외의 모든 조건은 평등하다. 이런 기반이 마련된다면 여성벤처기업들이 인터넷에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 수가 적어 여성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넓은 표본층으로

연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업종과 형태, 그리고 기업의 규모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여, 창업성과, 창업자금, 투자규모에 있어서 응답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업종 및 형태, 그리고 기업의 규모 별로 통제하여 조사를 한다면 더 정확한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창업가와 남성창업가의 성향을 비교, 분석하여 차이점을 이끌어 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장현국(1999).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과정.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2) 백금희(1998). 벤처기업의 성공적인 창업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유석(1998).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 창업환경. 창업기업의 특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김영주(1997). 기업가적 행동성향의 결정요인과 성과와의 관계.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최경철(1996).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창업성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황미선(1996). 우리나라 여성기업가의 교육. 훈련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김택수(1986). 우리나라 여성기업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8) 고정선(1991). 벤처 비즈니스의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정영금(1999). 여성취업의 대안으로서의 가족기업에 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11호.
- 10) 최홍대(1998). 우리나라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실태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오현경(1997). 우리나라 벤처기업의 성공요인과 시사점.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2) 김경애(1997). 여성미세사업가에 대한 기초연구.
- 13) 통계청(1999). 인구동태통계연보.
- 14) 통계청(1999).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15) 김순영(1993). 1980년대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및

- 취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6) 어수봉(1991). 한국의 여성노동시장. 한국노동연구원.
- 17) 정진화(199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취업구조.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18) 박용규 외(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삼성경제연구소.
- 19) 박장혁(1997). 벤처기업창업 및 소기업지원대책. 중소기업리뷰.
- 20) 송기재(1998).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 방안. 산업연구원.
- 21) 송장준(1997). 벤처기업 그 본질과 육성방안. 중소기업리뷰.
- 22) 양현봉(1997). 최근의 창업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성공창업.
- 23) 이정열(1996). 창업지원제도와 사례. '96 추계 학술세미나 자료.
- 24) 최창호(2000). 중소기업 창업지원제도 중소기업청.
- 25) 홍성도(1998). 벤처캐피탈산업의 발전을 위한 환경개선. 벤처캐피탈.
- 26) 김정일(1996). 중소기업창업 지원실태와 개선방안. 경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산업연구원(1998).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 27) \_\_\_\_\_ (1997).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신시장 설립방안 연구.
- 28) 산업자원부(1997). 19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 29) \_\_\_\_\_ (1997). 벤처시책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 30) \_\_\_\_\_ (1997).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31) \_\_\_\_\_ (1997). 구조전환기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 32) \_\_\_\_\_ (1995).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
- 33)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1996). 중소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 34) \_\_\_\_\_ (1996). 중소기업 지원제도.
- 35) 재정경제부(1996). 알기쉬운 중소기업 지원제도.
- 36) 중소기업지흥공단(1998). '98 중소기업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37) \_\_\_\_\_ (1997). 대학생 창업의식 실태조사 보고서.
- 38) Maddala, G. S.(1983). Limited 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39) Brush(1997). A Resource Perspective on women's Entrepreneurship Research Relevance and Recognition.

#### 〈참고자료〉

-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
- 인터넷 한겨레 - <http://www.hani.co.kr>
- 중앙일보 - <http://www.joins.com>
- 디지털 동아 - <http://www.donga.com>
- 여성포털 아이지아 - <http://www.izia.com>
- 여성 사이버 비즈니스 클럽 - <http://www.sabiz.co.kr>
- 여성특별위원회 - <http://www.pcwa.go.kr>
- 중소기업청 - <http://www.smba.go.kr>
- 중소기업청 내 창업관련 사이트 - <http://www.changup.smipc.or.kr>
- 국제소호연합회(SOHO Network) - <http://www.soho-link.co.kr>
- 연합창업지원센터 - <http://www.jes2000.com>
- 한국여성상공인 연합회 - <http://www.missy21.net>
- 여성기업 포털 사이트 - <http://www.womanowned.com>
- On-line Women's Business center - <http://www.onlinewbc.org>
- Women in Franchising - <http://www.infonews.com/franchise/wif>
- The Online Small Business Authority - <http://www.entrepreneurmag.com>
- Minority Business Entrepreneur Magazine - <http://www.mbermag.com>
- [http://www.advancingwomen.com/business/bus\\_airforceopps.html](http://www.advancingwomen.com/business/bus_airforceopps.html)
- The Entrepreneurship Centre - <http://www.entrepreneurship.com>
- [http://www.quicken.exite.com/small\\_business/starting\\_a\\_business](http://www.quicken.exite.com/small_business/starting_a_business)